

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생활과 윤리)

성명

수험번호

3

1

1. 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20세기 초에 등장한 ㉠ ○○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규칙 검토에 집중하였다. 하지만 이 윤리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. 이에 따라 환경, 생명, 정보 등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㉡ □□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었다.

- ① ㉠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규범의 제시를 목표로 삼는다.
- ② ㉡은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서술에 주력한다.
- ③ ㉠은 ㉡의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.
- ④ ㉡은 이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⑤ ㉠, ㉡은 실천적 지식보다 이론적 지식의 탐구를 중시한다.

2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은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오로지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. 이를 위해 기업은 자원을 활용하고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해야 한다.

- < 보기 >
- ㄱ. 기업은 공공선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.
 - ㄴ.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.
 - ㄷ. 기업에 이윤 극대화 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.
 - ㄹ. 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3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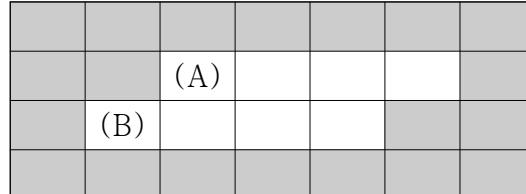
갑: 신은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다.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[召命]에 응답해야 한다.

을: 한 사람의 몸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, 만약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만 사용한다면 이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.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.

- ① 갑은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죄악으로 본다.
- ② 갑은 직업을 원죄에 대한 속죄의 수단으로만 본다.
- ③ 을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.
- ④ 을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역할 교환이 필수적이라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각자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.

4. (가)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, 퍼즐 (나)의 세로 낱말 (A)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 천지 본연의 모습과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게 되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 된다. 지인(至人)에게는 사심(私心)이 없고, 신인(神人)에게는 공(功)이 없으며, 성인(聖人)에게는 명예가 없다.



(나) [가로 열쇠]
(A): “자신을 수양한 후에 남을 다스린다.”라는 말.
(B): 유교에서 주장하는 효의 완성.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자신의 이름을 떨친다는 뜻.
[세로 열쇠]
(A): 개념

- ① 옳고 그름[是非]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춘다.
- ② 선(禪)의 수양을 통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다.
- ③ 탐욕, 성냄, 어리석음의 삼독(三毒)을 제거한다.
- ④ 홀로 있을 때에도 언행을 삼가는 신독(慎獨)을 실천한다.
- ⑤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함[心齋]으로써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난다.

5. (가), (나)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국제 사회는 본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이고, 국가 간의 관계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.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.
(나)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. 그런데 전쟁은 상호 간의 오해나 법과 제도의 불완전함 때문에 발생한다.

< 보기 >
ㄱ. (가)는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본다.
ㄴ. (나)는 국제법을 통해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.
ㄷ. (나)는 (가)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이상적 규범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.
ㄹ. (가), (나)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본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사회탐구 영역 [생활과 윤리]

6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①~⑤에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서술형 평가

◎ 문제 : (가), (나) 사상의 인간관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

(가)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하면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고,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.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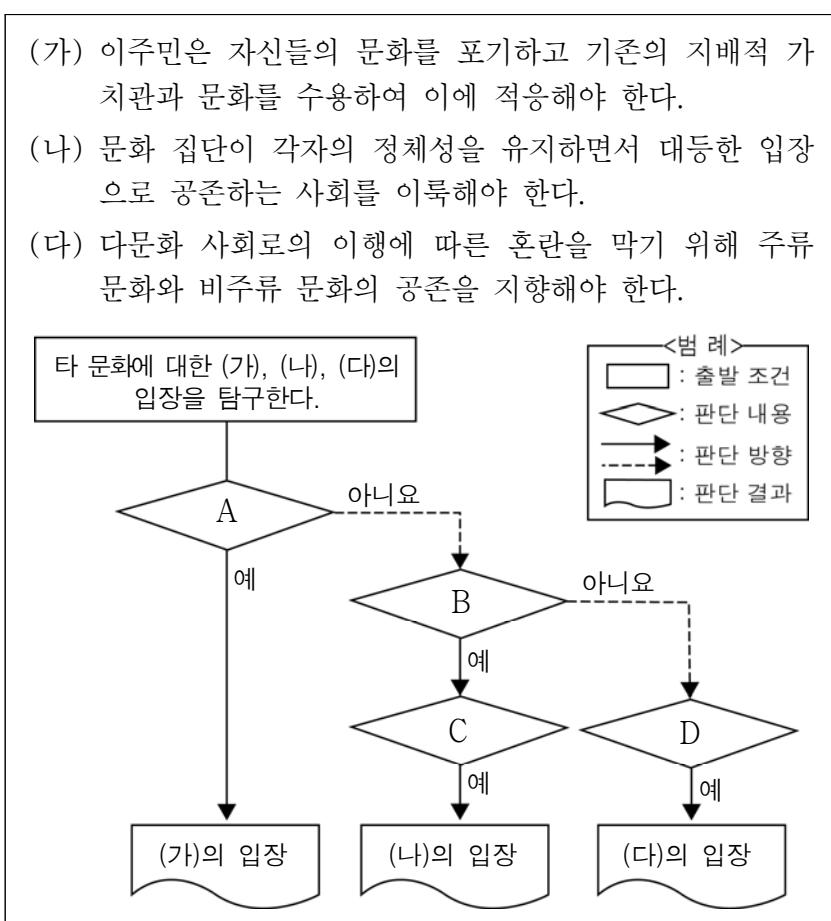
(나) 현실이 고통임을 깨닫고,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끊어 버리며,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자각하고,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.

◎ 학생 답안

(가), (나)의 인간관을 비교하면, (가)는 ⑦ 인간을 순선한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보며, ⑧ 자신의 본성을 현실에서 발현하는 삶을 중시한다. 이에 비해 (나)는 ⑨ 인간을 불성을 타고난 존재로 보며, ⑩ 고정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중시한다. 이상적 인간상으로 ⑪ (가)는 인의를 실현하는 군자를, (나)는 진리를 깨닫고 중생 구제에 힘쓰는 보살을 제시한다.

-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

7. (가)~(다)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, A ~ D에 해당하는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

- <보기>
- ㄱ. A: 단일 문화에 바탕을 둔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가?
 ㄴ. B: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화합해야 하는가?
 ㄷ. C: 소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가?
 ㄹ. D: 다양한 이질적 문화를 하나로 용해해야 하는가?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8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- 수령이 부임지로 떠나려고 짐을 꾸릴 때 옷과 말, 말안장은 쓴 것을 그대로 쓰고 새것을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.
-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받으면 이미 사사로운 정(情)이 생겨난다.

<보기>

- ㄱ. 의(義)보다 이(利)를 중시한다.
 ㄴ. 백성을 위해 절용(節用)에 힘쓴다.
 ㄷ. 청렴(清廉)을 으뜸이 되는 덕목으로 삼는다.
 ㄹ. 연고주의(緣故主義)를 토대로 공익을 추구한다.

- ① ㄱ, ㄹ ② ㄴ, ㄷ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ㄴ, ㄹ

9. 갑은 긍정,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

갑: 정보는 인류의 집단적 경험에 담겨 있는 공동의 자산이다. 정보를 특정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다면 공동의 자산이 상품화되고 다수가 소수에 종속될 수 있다.

을: 정보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생산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.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이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.

- ①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해야 하는가?
 ② 정보를 공유하면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가?
 ③ 정보 확산을 위해 저작권을 보장해야 하는가?
 ④ 정보 개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가?
 ⑤ 정보 창작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보호해야 하는가?

10. 갑,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해를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, 자연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

을: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.

- <보기>
- ㄱ.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.
 ㄴ. 환경 보존을 위해 인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.
 ㄷ.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.
 ㄹ.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1. 대화의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전통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시대에 여성의 지위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을: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전통 사회에서는 음양론에 근거하여 남녀 관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. 즉 전통 사회에서는 “⑦”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- ① 남녀는 서로를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대우하였다.
- ②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였다.
- ③ 남녀는 역할의 구분 없이 모든 일을 함께 하였다.
- ④ 남자와 달리 여자를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였다.
- ⑤ 남녀의 다름을 바탕으로 차별적 구조를 형성하였다.

12. (가)의 관점에서 (나)의 A, B 국가의 법률 개정(안)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사형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해악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‘등가성의 원리’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. 그래야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게 된다.												
(나)	A국과 B국은 아래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여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한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국가</th> <th>죄목(罪目)</th> <th>현행 법률</th> <th>법률 개정(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국</td> <td>살인</td> <td>무기 징역</td> <td>사형</td> </tr> <tr> <td>B국</td> <td>살인</td> <td>사형</td> <td>무기 징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가	죄목(罪目)	현행 법률	법률 개정(안)	A국	살인	무기 징역	사형	B국	살인	사형	무기 징역
국가	죄목(罪目)	현행 법률	법률 개정(안)										
A국	살인	무기 징역	사형										
B국	살인	사형	무기 징역										

- ① A국의 경우 범죄자 교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.
- ② A국의 경우 범죄자를 목적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.
- ③ B국의 경우 사형 제도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므로 옳다.
- ④ B국의 경우 처벌이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.
- ⑤ A, B국 모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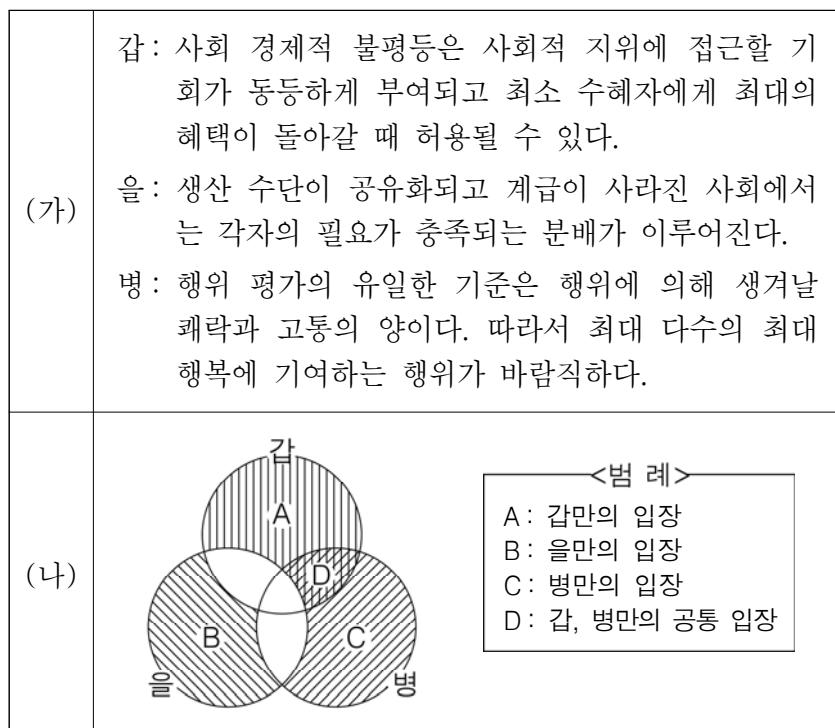
13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

세속의 음악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는데 하물며 성인(聖人)의 음악은 어떠하겠는가. 그러므로 “예악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.”라고 한 것이다. 음악이 융성하지 않으면 교화가 이루 어지기 어렵고 풍속도 아름답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.

- ① 예술은 미적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는가?
- ② 예술은 선악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?
- ③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?
- ④ 예술의 윤리성 강조는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?
- ⑤ 예술은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가?

14. (가)의 갑 ~ 병 사상가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[3점]



- <보기>
- ㄱ. A: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.
 - ㄴ. B: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.
 - ㄷ. C: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.
 - ㄹ. D: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
- ⑤ ㄱ, ㄷ, ㄹ

15. (가), (나)는 환경 윤리의 두 입장이다.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,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? [3점]

- (가) 쾌고(快苦)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다. 인간과 같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다.
- (나) 대지(大地)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얹혀 있는 공동체이다. 따라서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 보아 이를 존중해야 한다.

질 문	대 답	
	(가)	(나)
①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?	예	예
②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?	예	예
③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을 존중해야 하는가?	예	아니요
④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높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인가?	아니요	예
⑤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?	아니요	아니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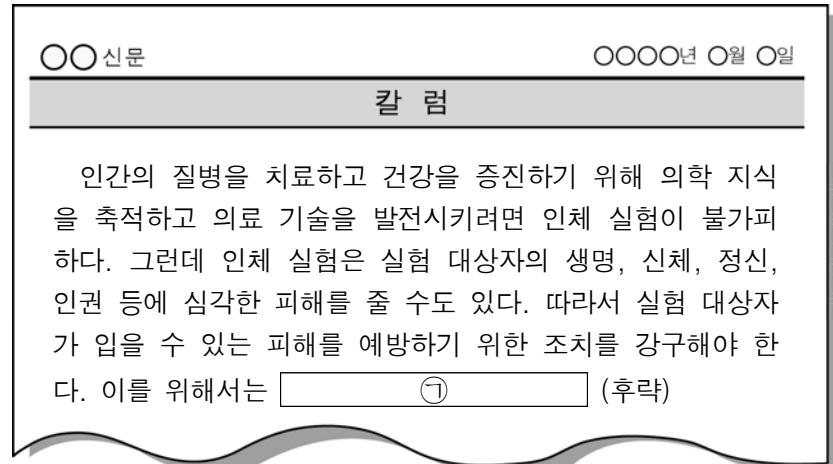
사회탐구 영역 [생활과 윤리]

16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 평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
서는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. 각 종교는 자신의 교리를 지
키면서 대화를 통해 윤리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.

- ① 모든 종교를 통합한 세계 종교를 건설해야 한다.
- ②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.
- ③ 단일한 종교 문화를 통해 종교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.
- ④ 종교인의 행위가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.
- ⑤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자기 종교의 진리를 포기해야 한다.

17. 그림은 신문 칼럼의 일부이다.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
지 않은 것은?



- ① 실험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.
- ②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.
- ③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험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.
- ④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예상되는 실험은 하지 말아야 한다.
- ⑤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18. 대화의 ⑦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과학은 선악의 가치 판단과는 무관한 사실의 영역입니다.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조작이나 왜곡 없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일만 수행하면 됩니다.
을: 하지만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?
갑: 그 학문적 성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과학자가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.
을: 아닙니다. 과학자는 연구 결과가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. 제 생각에 당신은 ⑦

- ① 과학에 가치가 개입되어야 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.
- ②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.
- ③ 과학을 참과 거짓의 인식론적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.
- ④ 과학자는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에만 집중해야 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.
- ⑤ 과학자의 연구는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

19.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에만 모두 '✓'를 표시한 학생은? [3점]

-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.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.
- 도덕적 요소들에 부합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함으로써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.

관점	학생	갑	을	병	정	무
		✓			✓	✓
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			✓			
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이기적 요구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.				✓	✓	✓
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.		✓		✓		✓
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도덕성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.			✓	✓	✓	

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

20. (가), (나)의 입장을 <보기>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?

- (가)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고 보는 것이다.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. 백성을 가까이 해야지 무시하면 안 된다.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.
- (나)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,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. 이 권리를 확보하려고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, 정부 권력의 정당성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.

<보기>			
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가?			
		예	아니요
통치자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가?	예	A	B
	아니요	C	D

- | | | |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(가) | (나) | (가) | (나) |
| ① A | D | ② B | C |
| ③ C | A | ④ C | B |
| ⑤ D | A | | |

- * 확인 사항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 했는지 확인하시오.